

테마칼럼

문학가 시계

광주3기

디자인 세상

문화와 마인

기후변화와 친환경 디자인



이난경

수준 높은 패션이나 디자인과 연결된 재활용은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재활용 브랜드의 활성화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며칠 전 학생들과 MT를 다녀왔다. 완연한 봄 날씨에 오랜만의 나들이라 설렌 기분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막상 무안 도리포에 도착해보니 강한 비닷바람과 잔뜩 짜푸린 하늘에, 순간 들뜬 기분은 사라지고 그저 따뜻한 방이 그리워졌다. 인간은 감각의 동물이라 하지만, 날씨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은 의지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가 보다.

과거엔 번개나 홍수를 신의 징벌로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과학의 발달로 기후를 예측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기술이진 발전했지만 태양의 주위를 돌며 달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는 기후에 감정뿐 아니라 운명까지 좌우되는 삶을 사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이 요즘은 더욱 심각해지는 황사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일 것이다. 2012 세계각국 협회를 여수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배경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거둔 가장 큰 성과는 기후변화회의였으며 열 고여 전 미국 부대통령이 역대 스타강사가 된 것도 기후변화의 심각성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탄소마일리지 같은 생소한 단어들도 점점 일상화되고 식목일도 매년 그때그때 정해야할지 모른다.

지금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30~40년 동안 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므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무실 전등을 끄고, 나무를 많이 심고, 육식을 덜해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소비의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오래 전 환경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내니 서를 기억할 것이다. 12살에 환경운동단체를 조직해 다양한 환경보호운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그가 사회운동 차원의 환경운동에서 입고, 먹고, 자고, 일하는 과정 속에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개개인의 의식 있는 일상생활이 거창한 구호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내니 서가 함께 운영하는 뉴욕의 유명 패션 브랜드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2000년대 초반 각종 빈티지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를 리폼한 의상으로 뉴욕컬렉션에서 주목받아 현지에서는 웬만한 명품 브랜드 이상으로 고가에 판매된다. 1993년에 첫 선을 보인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제작 공정으로 전 세

계적인 재활용 패션의 열풍을 이끌었다. 화물차 덮개용 천막을 가방 몸체로, 차량용 안전벨트를 가방 끈으로, 가장자리의 합판이는 자전거 바퀴 튜브의 고무를 재활용해 99~150유로로 짜진 양지만 날개 돌린 듯 팔린다. 영국의 '리마 커블'은 1996년에 설립된 캔시 브랜드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재활용한 연필, 페타이어를 원료로 한 종이 노트가 유명하다.

이런 친환경 재활용 디자인브랜드가 한국에도 등장했다. '쌈지'에서 만든 친환경 브랜드 '고맙습니다'의 큰 크랙과 PP포대를 이용한 빅백, 라벨을 재활용한 파우치 등이 인기를 끌고 있고 '에코파티메이리'에서 헌 옷과 소파, 현수막을 재활용한 패션, 소품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재활용이 갖고 있던 싸구려 이미지는 이제 옛말이다. 수준 높은 패션이나 디자인과 연결된 재활용은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재활용 브랜드의 활성화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지구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디자인에 거는 기대가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농도' 전남이 농가소득 전국 꼴찌라니

전남지역 농가 소득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부채 규모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은 낮고 빚은 늘어난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가소득 수준은 '농도(農道) 전남'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전남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006년에 비해 1.5% 감소한 2천754만5천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소득 3천196만7천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경북(2천726만9천원)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지역 농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농가의 어려움이 올해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가상승 여파로 비료값이 급등하는 등 경영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

에다 각종 생활물가 상승으로 농가의 가계지출도 늘어나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의 어려움은 전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득은 가장 적고 빚은 가장 많은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농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적정 농지 및 농가 유지 등 구조개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방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농촌은 다 죽게 돼도 공직자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고뇌가 없다"고 질책했다.

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갈등 한심하다

통합민주당의 총선 행보가 갈수록 실망스럽다. 약속했던 '개혁 공천'은 시용만 하더니 비례대표추천위원회 문제로 당내 갈등을 빚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아직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구 공천은 기대 이하였다.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을 받아 물갈이 폭이 한나라당에 크게 못미쳤다. 구시대 정치인 등이 전면에 복귀했고 계파간 안배 의혹도 떨칠 수 없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을 찾기 어렵다. 탈락자들의 반발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이런 마당에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가 비례대표추천위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공천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공천심사위는 일부 추천위원의 배제를 요구한 반면 지도부는 월권 행위라고 일축했다. 양쪽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비례대표의 근본취지는 선출직 의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다. 지역·직능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춘 신진들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공천 심사도 하기 전에 비례대표 명단까지 나뉘었다고 한다. 사실상 경우 대표성이나 전문성 대신 계파 안배와 연줄 등 구태정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주도권을 놓고 다들 만큼 한가한 처지도 아니다. 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의석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순학구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도 지역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은 총 54석 중 15~20석 정도로 예상된다. 한 석이라도 더 늘려면 정당의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가 하루빨리 갈등을 털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필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장치료를 하다 보면 척추가 심하게 휘그러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청소년들이 공부나 컴퓨터로 인해 의자에 앉았는 시간이 늘면서 잘못된 자세로 척추에 부담을 주는 시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

척추가 곧아야 키도 크다. 적인 형태가 변형돼 발병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래 방치한다면 척추는 물론 근육과 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런 증상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척추의 흐름과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주게 되므로 집중력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가 놀란 '자원봉사의 힘' 다시 보여줄 때다

영국 왕위계승 서열 3위 해리 왕자가 격전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부중 중이라고 한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필자는 지난 2월 초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에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학업 포라는 곳에 갔는데 예순이 넘는 노부부가 강원도 속초에서 찾아와 물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다. 그분들은 밀물 때가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속초에서 새벽 5시 출발했다고 한다. 진정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손을 잡고 찾아온 어린이들이 적지 않았다. 고사리손으로 조그만 물병이 하나하나를 들어내 댕는 모습이 미려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지금이야 개학했으니 중·고등학생이 많이 가기는 어렵겠지만 방학기간은 시간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대학생들 역시 취업 때문에 자원봉사보다는 공부에 더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정도 진정한 희생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전세계 언론이 놀란 우리의 진정한 봉사의 힘은 그 무엇인가 하루빨리 원상회복 되기를 기원한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기고 김호남. 최근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대선공약이니 지금도 유효하고, 전국 5+2 광역경제권 방안에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추진이 포함돼 있다고 짚고 넘어간 점은 대견스럽다.

역세권 개발, 21세기 철도산업의 트렌드

공에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특히 고속철도 정착역은 '21세기 철도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대역사요, 지역민에게는 필연적 기회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실감날 것이다. 역세권 개발은 신칸센이 지나지는 일본의 고베역과 나고야역이 대표적 개발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고베역사는 역세권 내에 문화공간과 워딩시설 및 영상관을 비롯한 호텔 푸드패션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나고야역은 도요다 자동차와 일본철도가 공동 참여해 토지구획 특별법을 제정 기업형 랜드마크적 오피스 빌딩, 역세권 도시로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시켜 새롭게 디자인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해소 등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인구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요, 찬스라고 믿는다. 21세기 철도산업의 트렌드는 역세권 개발에 달려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진 도시계획의 틀을 짜서 시민들의 공론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공약을 지켜라 촉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고속철도 주요 정착역의 지도자와 시민들의 소망이 담겨진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이 기회를 놓치면 100년 후에도 재건된다는 대역사로, 추세변동경향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접근하여 계획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공약을 지켜라 촉구만 하지 말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준비에 소홀함은 없는지 점검해 볼 때다. <전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회회장>

노인 교통사고 예방 '실버존' 확대를

실버존(노인보호구역제도)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경로당·노인병원·복지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외국에서는 오래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실버존에서는 특정 시간, 구간별 자동차 통행 금지 및 제한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 시간이 길어져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해 운전자의 사행운전을 유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에 달하고 있다. 실버존을 지정해 안전한 통행을 확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박익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無等鼓 우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도 각별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1천464개의 별들을 239개 별자리 밖기에 따라 정교하게 그린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圖)다. 서울 고궁박물관에는 이 별을 담은 각석(刻石)이 보존돼 있다. 학자들은 이 지도 원본이 고구려 시대인 1세기 초반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천문도가 3세기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기록보다 200년쯤 앞서는 것이다. 별자리 수 또한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88개보다 3배가 많은 정도로 다양하다. 이쯤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주 관측 분야 선진국에 해당되는 셈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km 떨어진 달나라에 아폴로 11호를 착륙시켰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은 이후 인류의 우주 개발 성과를 상징했다. 이웃 중국은 지난 2003년 10월 15일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지난해 달 탐사선 '창이 1호' 비행을 성공시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떠올랐다. /박익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